



2013. 5월(제20호)

# 오인회 소식

발행인의 말

## 상(相)이란?

당신이 이 순간 느끼는 모든 선함은 그 이면에 비교대상인 악함을 마음의 배경에 떠올리고 있기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함 속에 있다는 것은 곧 악함의 느낌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므로 미묘하게 악에 몰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느끼는 이들이 경찰이 되지만 오래지않아 부정을 더 많이 저지를 소지를 앓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정의를 느끼는 사람은 그 이면에 불러일으켜진 '정의롭지 않음'을 기반으로, 비교하여 정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상이란 산스크리트어 samjna '함께 안다' '함께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마음속 이미지나 느낌을 상(像)이라 하지 않고 상(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감정에 사용해봅시다. 지금 당신이 커다란 불안 속에 있다면 이는 곧 그 이면에 아주 안정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은 포토샵의 전경(前景)과 배경(背景)의 관계와 같아서 흰 배경이 없으면 검은 전경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배경이 없으면 드러난 무엇을 느낄 수 없습니다. 느낌이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데, 비교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좋다거나 싫다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그러므로...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아래에 우주적 충만함, 우주가 함께한다는 느낌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알아채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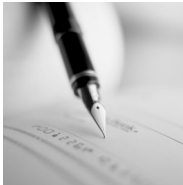
또 당신이 충만 속에 있고 기쁨으로 가득할 때 언뜻 외로움과 슬픔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기쁨을 느끼는 마음의 배경에 기쁨의 비교대상인 슬픔과 외로움이 일어나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충만 속에서도 한편으로 그 깊이만큼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 속에 있더라도 자신이 '잊혀지지 않는 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느낌의 동시성을 알아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나'와 '대상'도 그렇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越因

## 8차 깨어있기 계절수업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생생한 '느낌'을 어찌지는 못하고 결국 느낌에 끌려 행동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이란 어떻게 일어나며, 이 생생한 느낌의 끌림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느낌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을까? 이는 자신이 현재 생생하게 느끼는 '현재의 느낌'이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봄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번 계절 수업에서는 바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류일 수 있는지 체험해보고, 그 느낌으로부터의 자유와 그 자유로부터의 명료한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보는 자’는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법재 인터뷰(하)

법재님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심신치유 관련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깨어있기」 프로그램과 오인회 모임을 통해 법재님이 경험한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감지, 감각 공부와 언어의 정체, 본질의 탐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언어적 측면으로 많이 접근했지만 감지, 감각이 분명히 연결이 되죠. 언어에는 비언어적인 언어가 있고 언어적인 언어가 있거든요. 글자 그대로 감지는 언어 또는 생각을 뺀 안다는 느낌, 그리고 감각은 그것마저도 없는 상태니까 안다는 느낌은 비언어적 언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비언어적인 언어라는 표현도 쓰나요?**

아뇨, 그건 제가 생각해본 말입니다. 언어와 비언어로 이원적으로 구분할 때는, 그 중간 지대인 감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개념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언어적인 언어냐면, 실제로는 비언어지만 약간 구조적으로는 그것도 언어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지는 자기가 경험한 익숙하고 안다는 느낌이니깐요. 그래서 라캉 같은 프랑스 철학자는, ‘무의식도 언어처럼 구조화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대요. 제 경우엔 그런 식의 언급들도 신신하게 다가 오더라고요.

**오인회 참여하기 전부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아닙니다. 근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오인회 때가 시작이죠. 언어의 본질, 정체를 통한 접근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지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이 본인의 통찰에 어떤 도움을 준 것 같습니까?**

‘보는 자가 없다’라는 게 언어의 본질적 측면에서 만들어진 개념임이 너무 선명하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나 없을 때의 느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지나 감각 연습을 통하여 사전에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자’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나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 그 전에 감지라든지 감각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안되어 있었으면 실감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당연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의 정체’란 말을 쓰지만 ‘감지의 정체’란 말이 좀더 적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언어의 정체라는 것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모든 언어의 정체인데 그것이 사실 감

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마지막에 남은 주체 감(보는 자)이라는 것을 감지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의식 속에서의 모든 '앎' 이 다 감지고 거기에 언어가 더 붙으면 개념 또는 생각이 되는 것인데 그 느낌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라는 게 확연하니까요(여기서 '앎'이란 비언어적 앎 또는 감지를 말함 : 편집자 주).

**주체감 파악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수행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예. 그런 것들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몸부림이었던 거죠. 정말 엄격히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쌓여서 언어적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은 분명 아니구요.

**감지를 공부한 방법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지를 파악할 때 초반에는 의도적으로 이름, 개념이나 언어를 붙이지 않고 느끼기를 직접적으로 연습했었고, 그 다음에는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붙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게 이상한, 아니면 붙인다고 해도 그 이름으로 느끼지 않고 감지로 느껴지는, 그런 쪽의 연습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대상으로 연습을 하셨나요?**

초반에는 컵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름 붙이고 느끼기, 이름 떼고 느끼기 연습을 했습니다. 또 제가 파트너를 바라보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고정된 개념들을 통해 바라볼 때의 느낌('저 사람은 성격은 이렇고, 이런 패턴을 갖고 있고, 또 이런 한계를 보인다')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떨어지니까 이전에 느낀 편견이나 고정관념,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안 느껴지거나 아니면 느껴져도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에게 제가 보이게 되는 반응도 옛날처럼 똑같이 부딪혀서 터지는 과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개념이 수그러드니까 제 반응도 저절로 수그러들고, 저의 차분함 내지는 진실한 반응이 나와서 결국은 더 이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상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월 30일 체험 이후에는 언어의 본질이랄까, 정체를 파악하고 나니까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져 나가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고정관념이나 상들이 마치 화면에 맺힌 영상과 같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면 1월 30일 체험 전과 후의 일상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초기 2주 정도는 느낌상으로 그 확연함이 남아 있으니까 좀 분리되어서 느끼거나 하는 식의 심리적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와 관계 맺는 중에 화낼 상황인데 그런 화의 기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험이 다시 상기가 되면서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와 대상이 만들어진 개념이다.'는 게 파악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전이었다면, 의도적으로 유념하고 떠올려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바탕으로 깔려있는 차이인 것 같고요.

**감정이 잠깐 올라왔다 하더라도, 확장이 되지 않고 금방 사라질 수 있었겠네요?**

그런 맥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초반에는 크게 화를 낼 상황이었었는데 저절로 정리가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두어 번 정도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크게 화를 낼지언정, 이전에 화낼 때와 지금 화낼 때 뭔가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전에 다룰 때는, 제가 파트너에 대해 갖고 있는 저의 고정된 관념이라든가 이미지를 사실이라 여기고 '아 저 친구는 이렇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오네, 아 씨,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커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파트너도 막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뭐 사람을 재단하네, 사람을 단정 짓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이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런 행동은 무례한 거 아니냐,' 내지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준다, 급하다,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팡' 하고 부딪히는 거죠. 이쪽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가지고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도 피해가 되고 상대도 피해가 가니까 하지마,' 라고 하지만 저 쪽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감지와 감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충돌입니다.

그런데 1월 30일 이후에도 사실 2, 3차례 외부적으로 볼 때 그 전과 똑같은 패턴, 싸움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에너지가 분출되고 똑같은 감지의 과정을 거쳐서 다투는데, 속에

서는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즉, 싸웠다는 것에 대해 불쾌하거나 화나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놓친게 뭐지? 내지는’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렇게 했네.’ 하고 관찰하게 된 거죠. ‘아, 아직 관성이 많이 작동했구나. 아 그거 작동하는 거 결과가 별로 안 좋네’ 라는 것을 막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 쪽에서 뭔가 반응을 보이는 순간 제가 파트너에 대해서 기존의 감지, 고정 관념이 있지만 그 정체, 본질에 대한 허구적 느낌이 있어 저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어요. 뭔가 좀 부드럽게 조용히 흐르고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식으로 반응과 대화가 나왔고, 상대방도 ‘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하면서 역시 또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서로 고통받으면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동시에 두 사람 간에 우호적인 어떤 교감 내지는 소통, 이해에 대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는 채로 끝난 거죠.

**그러면 애초에 그러한 다툼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와 화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제 믿음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로 자리 잡으니까 후속 반응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감지에 대한 정체가 파악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반응에 에너지가 들러붙질 않는 거죠. 또,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정의나 편견, 고정 관념 등의 감지가 있었겠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또 있어서 그 감지의 바탕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후속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를 파악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후속 반응들을 일으키는 에너지들이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신념이랄까 믿음을 상대방한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어느 선까지는 계속 주장해 봤죠. 그런데 그 경우 원래 바라는 목적은 상대방이 알아차려서 그렇게 바뀌는 것인데 그런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그것이 통찰되면서 그냥 놔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불편함 같은 건 없으셨나보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라든가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뭐 안타까움도 감지일 것이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것이 내가 믿는 만큼의 100%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심리 상담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하시는 업무에서의 변화는 있으셨나요?**

지금은 심리 상담보다 주로 교육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엔 교육내용 외에 그동안 알아온 것이나 공부한 내용 중에 불필요한 내용들까지 말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했다면, 이제는 근원 또는 본질적인 것과 관계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전달하려고 하지 않게 된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체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1월 30일 이후로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그냥 평상시였고, 한 번은 파트너와 굉장히 심하게 다툰 이후라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선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엄청난 평화 상태를 체험하면서 깨어난 겁니다. 마음은 심란한 상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의 평화감을 느끼려면 아마 돈이 수십, 수백억이 통장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뤘을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도대체 이런 평화감은 뭐지? 이게 어떻게 생길 수 있고, 왜 오는 거지?’ 라고 궁금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근본에 대한 통찰이 현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혹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통찰 이후에는 삶을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좀 더 보람되게 그리고 한 개체가 아닌 전체를 원활하게 만들고 좀 더 잘 기능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개체에 에너지가 집중되고 뭉쳐져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갈 땐 분명 혼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면, 통찰 후에는 개체성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전체에 주의가 갈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오인회 원격화상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계신 법계님과 성암님, 여수에 계신 지원님, 그리고 보은의 타오님과 칼라님께서 꾸준히 참가하고 계십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중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카메라와 스피커가 갖추어진 컴퓨터를 준비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화상통화 시스템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참가비는 매달 10만원입니다.

행동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아마 현실 삶에서는 개인도 좀 더 유연한 삶, 관계도 좀 더 유연한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자기가 존재하는 공동체든 사회든 간에 그 범위 안에서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깨어 있기의 감지, 감각 훈련이 어떤 훈련보다도 근원의 통찰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이고, 효과적인 훈련이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최종적으로 이것은 방법론이라는 것과, 이 한 가지 꿈에 몰입은 하되 이것이 몸부림이라는 것에 대한 점은 계속 유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질문, 답변 자체가 또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답변자가 정해져 있는 내용을 듣는 분들한테 풀어 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터뷰하면서 저도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감지의 정체’ 라는 새로운 개념이나 화가 일어나는 이유나 구조에 대해서

도 그 전에는 그걸 크게 유념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아 그게 제일 큰 감지구나, 그 감지에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후속 반응이 일어났구나’ 하는 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이런 인터뷰의 유익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는 내부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본에 대한 느낌, 실감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망치로 때린다고 하면 1의 강도 5의 강도 10의 강도 1000의 강도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 와지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내부적으로 더 그걸 선명하게 느끼는 그런 과정들을 밟다보면 관성 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남아 있는 공부의 과정이라면 과정일 것 같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법재님이 추천하는 책들..



### 야마다 사장 샐러리맨의 천국을 만들다

야마다 아키오 지음 | 김현희 옮김 | 21세기북스(2007년)

보통 우리가 ‘근원에 대한 알아차림’ 등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삶은 삶대로 그 현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근본적인 듯한 ‘근원 알아차림’ 등이 실제 되었다 쳤을 때, 그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기본적인 의미에선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의미성이 없긴 하지만 여튼 할 수 있다면 ‘미라이 공업’의 야마다 사장과 같은 일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유롭게 된 한 인간이 세상에서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 생각되어 책을 추천해 봅니다.



### 젤라토르: 비밀의 역사(상, 하)

마크 헤드슬 지음 | 정영목 옮김 | 까치(1998년)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추천자 본인도 이러한 신비주의적 지식이나 체계에 대해선 더 이상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모두 ‘개념의 한계’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근원에 대한 통찰’ 등의 관점이나 분야와는 별개의 것이란 것을 전제로 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책 속의 실존 인물들과 지식들은 자신들이 그 ‘근원’을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여기긴 합니다. 그렇다면 추천의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서양 신비주의에 대한 개인적 인연감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읽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얻는 점이 각각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구술자인 마크 헤드슬은 진리를 찾음에 참 올곧은 사람입니다.)

원효의 소(疎)

夫大乘之爲體也 蕭焉空寂，愜爾沖玄，玄之又玄之，豈出萬像之表，寂之又寂之，猶在百家之談，引之於有，一如用之而空，獲之於無，萬物乘之而生，不知何以言之，強號之謂大乘。

대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하야나(mahayana)라는 범어(梵語)의 중국식 번역어입니다. 마하(maha)는 크다는 뜻으로 '마하리시(maha rishi)' 하면 큰 스승이죠. 야나(yana)는 수레입니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을 실어 나르는 큰 수레' 라는 의미이지만, 그 본뜻은 '본질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중생을 초월의 세계로 실어 나르는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대승의 본체가 경험된다는 것이지요. '큰 수레' 라는 뜻의 대승(大乘)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큰 수레의 기능을 통해 '본체가 체험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큰 수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중생을 실어 나르는 것.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대승의 체험이에요. 우리가 큰 수레의 기능을 함으로써 큰 수레의 본체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보살의 길을 감으로써 진리가 체험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승의 본체는 단순히 큰 수레가 아닌 겁니다. 그 본체는 생명의 본질이고 의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승이라 하면 보살도를 행하는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살도를 행한다는 것은 생명의 힘이 대승이라는 회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힘 자체는 아닌 것이지요. 전기와 컴퓨터로 따진다면 메인보드(mainboard)가 대승의 기능을 하는 보드라면, 진짜 대승의 본체는 전기, 즉 생명의 힘인 것이지요. 또 우리는 메인보드를 자꾸 사용해봄으로써 그 안에 흐르는 전기를 체득하고 경험하는데 이것이 대승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본뜻입니다. 대승의 기능, 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살도(菩薩道)를 행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돕는 작업,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생명력, 이것이 대승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한자를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빨리 와 닿습니다.

“무릇 대승의 본체라는 것은(夫大乘之爲體也), 고요하고 텅비고 적막하며, 깊고 충일하다(蕭焉空寂, 愜爾沖玄).”

이때 텅빔은 꼭 찻다는 것의 반대로서의 빈이 아닙니다. 충만한 텅 빈이죠. 그래서 심이충현(愜爾沖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충은 충일(充溢)하다고 할 때의 충자입니다. 가득 찻다는 말이죠. 심도 아주 깊다는 뜻이고, 검을 현 역시 아주 깊은 것을 말하죠. '흑암이 천지를 운행할 때' 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그런 깊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깊고 또 깊지만, 아무리 깊고 깊다고 하더라도 만상이 드러나는 표면을 어떻게 벗어나겠는가?(玄之又玄之, 豈出萬像之表)”

잘 보십시오. 드러나는 현상을 벗어나서 어찌 본질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번뇌 즉 보리라는 말입니다. 번뇌를 떠나서 어떻게 보리가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번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한 마음'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마음' 이란 괴롭고 불편한 마음에 대비되는 마음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는 평안한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타성(依他性)' 입니다. 번뇌(煩惱)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곳에는 보리(菩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 속에서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번뇌에 반응하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 반응을 느끼는 '본질' 을 파악해야하는 겁니다. 번뇌에 반응하는 현상이 없으면 본질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면 느낌이 일어나는 바탕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탕이란 것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흰색도 화지 위에 아무리 많은 그림을 흰색으로 그린다 해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흰색에 대비되는 검은색을 그려야만 보이지요. 즉 본질을 '알려고 한다' 는 것은 흰색으로 흰색에 무언가를 그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현상을 통해서 드디어 본질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은 결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다(豈出萬像之表)' 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적막하고 또 적막하지만, 오히려 백가의 가르침 속에 있다(寂之又寂之, 猶在百家之談)“.

백가(百家)는 수많은 연설가, 논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고 있지요. 유교도 사실 이런 가(家)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큰 세(勢)를 키우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니까 유교가 된 것이죠. 원래는 유가였습니다. 목자, 맹자, 노자, 장자 등 수많은 자(子)가 붙은 중국의 고대 사상가들, 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많아지고 커졌다면 교(敎)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교가 가장 현실 정치에 맞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세력이 커지게 되었고, 교(敎)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의 교리를 취사선택하여 결정되었던 것이죠. 8만대장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현실정치의 이점을 위해 국교로 받아들인 왕이 있었기 때문에 흥성하게 된 겁니다. 다 정치와 현상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이 종교들이 쓰였기 때문에 현실세계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본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드러난 현상인 백가의 담(談)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지어유(引之於有)”

‘그것을 이끌어내어(引) 유(有)에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라는 뜻입니다.

즉, 있음과 없음 중에 ‘있음’에 속한다 라고 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것이지요. “이 대승이라는 것의 본질은 존재하는 거잖아. 어쨌든 현상이든 뭐든 존재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려고 해보니까.

“일여용지이공(一如用之而空)”

일여(一如)는 진리를 말합니다. 보통 진여(眞如)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인 것’ 또는 불이(不二 : 하나는 하나 아닌 모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둘도 아니다 不二’)라고 하였습니다. 용지(用之)란 “쓰다”는 뜻입니다. 진여 즉 본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난 것은 본질이 아니라 모두 현상(現象)이에요. 그래서 쓴다(用之)라고 한 것입니다. 본질은 쓸 수 있을 뿐이에요. 쓰여지는 모습(현상)은 있지만 그 자체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空)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쓰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대승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쓰여지긴 하지만 항상 텅 비어있어, ‘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서 ‘없음’에다 소속시켜 보려고 하니까, 만물이 이것을 타고 생겨난다(獲之於無, 萬物乘之而生)”

획(獲)은 ‘포획하다. 잡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붙잡아 ‘없다’ 라고 해보려니까, 만물이 이 대승, 즉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을 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없다’ 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있다’ 라고 하려니까 늘 텅비어있고, ‘없다’ 라고 하려니까 만물이 여기서 생겨나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이름 붙여서 대승이라 하였다(不知何以言之, 強號之謂大乘)”

그러므로 대승(大乘)이라는 말은 단순히 큰 수레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이름붙일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진리는 이름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기능으로 봐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제일 좋다는 의미에서 만물을 진리와 고통없는 곳으로 실어나르는 큰 수레인 대승이라고 붙인 것뿐입니다.

대승의 진정한 의미는 우주 만상에 흐르는 생명의 힘이고, 의식의 근본이고, 보살도의 본체인 겁니다. 많은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구마라집의 수제자인 승조법사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구해야한다(必求靜於諸動)’ 고 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고요는 반쪽의 고요입니다. 그러나 움직임 속의 고요는 불이(不二), 즉 전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고요와 움직임이 둘이 아니게 되겠죠. 나와 대상도 둘이 아니게 됩니다. 둘 다 의식의 본 바탕에서 피어나는, 우리 마음이라는 바탕 속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움직임과 고요, 보리와 번뇌, 나와 대상, 이 모두가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열현상으로 인해 보여지는 구별되는 모습일 뿐, 여전히 ‘한마음’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보는 모든 대상은 사실 마음속에서 분별되는 감지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감지(感知) 연습을 철저하게 하면 “‘내가’ 지금 일종의 마음속의 매트릭스 속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 인연분(因緣分)

문기를, 어떤 인연으로 논을 지었는가? 답하기를, 그 인연에는 8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인연총상(因緣總相)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 세상의 명리와 공경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둘째는 여래의 근본 뜻을 해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불명료한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선근이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법(大乘法)을 감당함에 있어 불퇴전(不退轉)의 신심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넷째는 선근이 미약한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수행하고 익히게 하기 위함이며,  
 다섯째는 방편을 보여 악업장(惡業障)을 소멸하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며, 어리석음과 교만에 서 멀리 떠나고, 사악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여섯째는 지관(止觀)을 수행하고 익혀 범부(凡夫)와 이승(聲聞僧과 緣覺僧)의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기 위함이고,  
 일곱째는 방편에 전념함을 보여 부처님 앞에 태어나 불퇴의 신심을 반드시 이루기 위함이며,  
 여덟째는 이익을 보여 수행을 권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인연이 있기에 논을 지은 것이다.

이제 드디어 대승기신론의 첫 번째 장인 인연분(因緣分)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인 인연분은 마명(馬鳴: Ashvaghosa)이 이 글을 지은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연총상(因緣總相)으로, 총상(總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통합된 하나의 상을 말합니다. 중생(중생이라고 하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말함)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둘째부터 여덟째까지의 모든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를 위한 보조 설명일 뿐입니다.

소위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에서 떠나게 하고,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함이 아니다(爲令衆生, 離一切苦, 得究竟樂, 非求世間名利恭敬)’ 라는 것입니다.

이 때 일체의 고통을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합니다. 물론 마명이 말한 것을 해석한 것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단생사(分斷生死)와 변역생사(變易生死)입니다. 분은 나눌 분자, 단은 끊을 단자이고, 변할 변자에 바꿀 역자입니다. 분단이란, 분별한다는 것이죠. 분별을 통해서 항상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단이라는 것은 나눠진 한계로, 단은 형태의 다른 말인데 즉 어떤 형태의 한계를 지녔다는 말입니다. 가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분단은 즉 한계와 형태를 지닌 분열(分裂)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분단의 최초의 모습이 바로 ‘나와 대상’이라는 내적인 분열인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은 사실 아무런 분열과 분단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그 세상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기 위하여 나와 대상으로 나누어 놓고 마음의 장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개별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분열을 기반으로 그것이 투사되어 다양하게 펼쳐진 것뿐입니다. 이 분열을 기반으로 ‘안다’는 현상, ‘느낀다’는 현상, 기타 희노애락이 모두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기쁨도 분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기준, 이를테면 ‘나는 한 달에 오백만원을 벌어야 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원을 벌면 기쁘겠죠. 그런데 백만원 밖에 못 벌면 슬플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나와 동일시된 마음의 형태’와 그것에 반하여 일어나는 외적인 상황들이 부딪힘으로써 이런 소리(박수침)가 발생하는 것이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분열을 기반으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안다’이지, ‘나’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는 ‘안다’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데 ‘누가’ 알겠어요? 느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곳에, 즉 나라고 여겨지는 주체감이 없는 곳에 ‘대상’이라는 ‘느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체의 고통은 바로 이 분단(分斷)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생사, 분단으로 인하여 생사가 있는 것처럼 되고 그로 인해 일체의 고(苦)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다음 호에 계속)